

노후생활비 준비에 따른 연금 수급액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A Study of Pension Receipt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reparation of the Living Cost for Aging : Focusing on Public Pensions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
교 수 이 승 신**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
Professor : Lee, Seung-Sin

<Abstract>

The graying of populations is emerging as an international issue around the world, and this is a problem that is rapidly advancing in Korea as well, signaling the need for financial preparations for the aged. For this purpose, various retirement pension systems are being employed as preparatory measures for the nation's elderly. Using data from 1474 people in the 2007 panel study of National Security for the Retired, the present work attempts to look at satisfaction rates with regard to public pension receipts for the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actors related to the preparation for an aging society.

Satisfaction with retirement pension receipts according to the type of pension was high for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s,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s and the national retirement pension, in that order. Looking at satisfaction rates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nsion recipients, the study revealed that for the national pension, satisfaction was highest for groups with above-averag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groups who think appropriate living expenses for the elderly are lower, groups in which a partner also earns income, and groups who had amply prepared for their expected living expenses in later life.

Regarding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s, satisfaction was high for groups over the age of 70, groups with good psychological health, and groups sufficiently prepared for their living expenses in later expenses, compared to groups for which these factors did not apply. In terms of the relative influences impacting retirement pension recipient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the national pension was highest when the primary source to cover elderly living expenses was a resource other than income earned by the recipient and their partner and/or income received from children.

Concerning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s, satisfaction was highest among those whose education terminated before middle school, and for those in good physical health.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vital that plans exist for preparing sufficiently for the living expenses of the elderly and for facilitat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of pension recipients. Plans are also necessary to, ensure that citizens are provided with easily accessible educational programs and activities regarding general installment savings and deposits, stocks and bonds, real estate investments,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s, private insurance, severance pay pensions, and public pensions.

▲주요어(Key Words) : 노후생활비 준비 특성(factors related to preparation of living cost for aging), 연금 수급액 만족도(pension receipts satisfaction), 국민연금(national retirement pension), 특수직역연금(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 이 논문은 2009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주저자 · 교신저자 : 이승신 (Email : Lchung@konkuk.ac.kr)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도로 발전된 의학기술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더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균수명연장은 은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생의 거의 1/3을 은퇴한 채로 보내야만 한다. 따라서 노후를 위한 재정적인 준비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경제 당시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종언을 고하면서 저성장구조의 고착화 등 2000년 이후 경제적 조로(耄老)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2000년부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2018년에는 고령자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18년밖에 안 걸리는 셈이다. 독일(40년)의 2.2배, 미국(73년)보다 무려 4배로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38.2%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인구의 중간 연령은 56.7세가 되어 평균연령이 52.3세인 일본을 앞지를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다(한국경제, 2011).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함에 따라서 1980년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인 '노년부양비'가 16.3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평균 8.6명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2030년에는 평균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바뀔 것으로 측정되었다(삼성경제연구소, 2005).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을 경우 서구선진국이 겪었던 제반문제와 갈등요소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그 이상 충격을 받을 상황이다(Jeon, 2008).

노후생활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대책과 사회적 대책이 있다. 개인적 대책은 개별 가계에서 은퇴 이전에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자녀나 친척의 보조를 받는 것이고 사회적 대책이란 전체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 사회연금제도의 확대 등을 실시하여 노인의 생활을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Kim & Park, 1992: 45-5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 대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은퇴이전 가계에서는 노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생활비에 대한 부담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2006)가 서울지역 직장인 근로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이 64.6%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사(보건복지부, 2011)에 따르면 노후생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세 이상 노인 62.3%, 65세 이상 노인 66.2%로 실제 노인계층은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성숙된 사회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공적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령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소득보장제도도 공적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공적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 경로연금대상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해도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수급률은 32.4%에 지나지 않고 금액도 아주 적어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아주 미흡하다. 나머지 67.6%는 어떠한 공적소득보장제도로부터도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공적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연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9년 사회통계국 사회복지통계과 '사회조사(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사회참여)' 결과에 의하면 매월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 중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66.9%(2007년, 7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그러나 유사한 공적연금으로써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부담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재정전망분야 공개토론회 자료에 따르면(2011)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각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장기재정계산을 실시한 결과, 4대 공적연금의 지출규모는 2010년 GDP 대비 2.1%에서 2050년 7.4%로 GDP 대비 5.3%p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는데 공적연금 지출증가의 대부분(GDP 대비 4.4%)을 국민연금이 차지하였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지출규모 증가폭이 작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며 기초노령연금과 연계된 연금제도 개선 및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화와 수명 연장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은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노후준비계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숙되지 못한 노후제도와 인식의 부족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연금 수급액 만족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한 만족도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 보거나, 연금액의 만족도를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 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연금수급액의 만족도를 노후생활준비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연구뿐만 아니라 연금제도의 기분이 되는 공적연금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적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으로 본인의 자발적 의지로 선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특수직역연금은 특수한 직업만을 포함하므로 국민연금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구분하여 연금수급액 만족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금 수급액 만족도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보고자 한다. 즉, 일반적 특성뿐 아니라 재정적 특성, 그리고 노후생활비준비에 따른 연금 수급액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금제도는 다층연금시스템의 구축,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연금시스템의 신뢰 확보, 퇴직연금기관의 감독을 통한 민간연금시장의 활성화,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의 합리성 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고령사회를 극복하고 자본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Kim, 2011: 1-35).

따라서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 아직은 노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후생활을 대책을 준비하지 않는 고령자들을 위해 그리고 공적연금 수급자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 공적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을 시초로 하여 1963년에 군인, 1975년에 사립학교 교직원, 1992년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게까지 영역을 넓혀왔고, 국민연금 역시 1988년 도입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강성호·이지은, 2010).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어 생계가 어렵게 되었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강제로 가입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 형태의 부분적립 방식이며 소득재분배

부분이 있는 소득비례연금 방식의 사회보험 제도이다. 보험료는 계속 인상되어 현재 소득의 9% 수준이며, 급여수준은 소득대체율이 제도 초기 70%에서 2028년에는 40%로 하락될 것이고, 2010년까지 가입자는 1,923만명, 수급자는 297.5만명, 적립기금은 291.7조원이다(남재현, 2011).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법 제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연금 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국민의 장기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이다(김익균, 2002).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 받아야 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애안정대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국민연금제도의 존재 이유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국민연금제도는 부담률에 비하여 급여 수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구조적 문제점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와 사회적 여러 원인으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 진전에 따라 향후 30여 년간 적립된 후 17년 만에 급속히 소진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금적립금은 2043년에 그 규모가 2,607조원의 최고치를 달성한 후 급속히 감소하여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같은 3층의 노후 보장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퇴직 후의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연금 운용수익률 연 1%p 증가는 기금고갈 연도를 5년 늦추는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이에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영에 관하여 살펴보고 보다 나은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남재현, 2011).

2) 특수직역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 중 특수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가 있다. 국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수직역연금제도로 불리고 있으며 매우 유사한 특성은 지닌다. 이러한 특수직역연금은 이론상으로 순수한 연금보험제도가 아니고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퇴직금제도 등이 혼합된 일종의 종합보험이다(이용하, 2001; Song, 2003).

특수직역연금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효시로서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실시되었다. 공무원이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 등

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할 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령·장애·사망 등 소득상실 사유 발생 시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이며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복지제도이다(공무원연금 기금운용 연차보고서, 2010).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현직공무원 1,052,407명과 연금수급자 308,233명(장해연금 제외)을 포함하여 1,360,640명이 공무원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연금 선택률이 94% 수준에 달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제도는 퇴직 및 사망에 대한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업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폐질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부문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과 기업 및 노동조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조회 급여 등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제도는 연금보장, 퇴직금, 재해보상, 상조회 기능이 통합된, 교직원을 위한 종합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4대 사회보험제도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역할만은 제외되어 있다(Yoo, 2008: 185-271). 사학연금공단 통계연보(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금수급자가 총 31,325명이었으며, 이 중에 학교 교원이 22,085명(70.5%), 사무직원이 9,240명(29.5%)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까지의 퇴직자 수는 16,944명(2008년, 19,122명), 연금수급자 수 72,934명(2008년, 10,259명), 퇴역연금 선택률 96.3%(2008년, 95.7%)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연금수급자 현황은 인천 및 경기 33.3%, 서울 26.3%, 부산·울산·경남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의 예비은퇴자들의 노후준비실태

1) 노후준비실태

서울복지재단이 노후를 준비하는 35세에서 59세까지의 서울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서울 시민의 연령 집단별 노년 준비 실태 및 노인 복지 욕구 실태 조사 보고서(2008)'를 실시하였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노년 준비 자금으로 연간 소득의 10% 미만을 투자했다는 사람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10%에서 20%를 투자한 사람은 19.9%, 20~30%를 투자한 사람은 17.4%, 30~50%를 투자한 사람은 3.7%였으며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12.8%였다. 이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주로 투자하는 상품 중 액수가 큰 것은 부동산, 주식과 채권, 예금과 적금이었다.

서울 시민들이 예상하는 '노후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는,

월 91만원에서 1백40만원이라는 응답자가 31.7%로 가장 많았고, 1백41만원에서 1백90만원이라고 답한 사람은 29.1%, 1백91만원에서 2백90만원이라고 답한 사람은 25.4%였다. 하지만 이들에게 '행복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월 생활비 규모'를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매달 50만원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인 54.2%가 1백50만원에서 2백50만원은 있어야 행복한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대답했고, 3백만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도 12.1%나 되었다.

노후의 생활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2%는 본인과 배우자가 계속 일을 해서 충당하겠다고 대답했다. 젊은 시절부터 준비한 노후 자금, 공적 연금, 퇴직금에 의지하겠다는 사람도 각각 62.2%, 43.6%, 24%였다. 이에 반해 노후를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겠다는 대답은 18.7%로 비교적 낮았다. 정부가 주는 생계비를 대비하겠다는 경우가 8.9%,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으로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경우가 6.7%였다.

'미래에 공적 연금을 얼마나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라는 질문에 5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가 51.2%, 50만원에서 100만원은 38.2%, 100만원 이상은 6.5%였다. 서울 시민의 85.4%가 공적 연금에 가입하고 있지만 과반수 이상이 매달 50만원 미만을 수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Yuh, Joung and Moon(2007)은 앞으로 은퇴를 겪게 될 가구주가 전업제 직업에 종사하는 20대~50대의 중산층부부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관적으로 은퇴준비가 충분하다고 평가한 경우 34%,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경우 66%로 나타났다. 은퇴준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로 나타났으며, 주택마련자금, 현재 생활비 충당도 힘들기 때문도 상당히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분석 결과(2009) 중장년층 가운데 68%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32%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공적연금, 사적연금, 공적연금과 저축 4가지 가운데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비율이 16%, 세 가지가 23%, 네 가지 이상이 18%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중복적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장년층의 준비는 다층적인 준비를 실천하는 계층과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는 계층 간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학력, 소득 수준, 및 직업계층과 같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준비의 양극화가 사회경제적 변인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금가입 및 수급현황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청(2010)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자는 약 143만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성호·이지은, 2010).

조사대상자의 공적연금가입 및 가입이력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령미만(60세 미만)에 있는 고령자(직장근로 및 자영업 등 취업자) 중 본인명의로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수급대시중인 사람 포함)의 비중은 대략 절반(50.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별로는 직장근로자는 51.6%가 가입 중에 있으며, 자영업자는 34.1%가 가입 중에 있다. 총가입자 중 92.5%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5).

연금수급 및 수급이력을 살펴보면, 50세 이상 고령자 중 연금을 수급하는 인구의 비중은 12.2% 즉, 대략 10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에서는 60대가 가장 많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금수급과 동시에 소득활동을 하는 비중(25.2%)이 의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연금수급자 중 23%는 특수직역연금, 나머지 77%는 국민연금 수급중이다(김시원 등, 2006). 평균수급기간은 국민연금의 경우 3년, 특수직역연금은 10년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재직 및 납부기간은 국민연금의 경우 8.4년,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7.7년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0).

최근 통계청(2010)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5년 16.1%, 2007년 22.4%, 2008년 25.0%인 점을 감안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 비중은 각각 88.6%, 10.0%, 1.4%로 나타났다. 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절대 규모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 제도간의 상대적 비중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2009년 동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 비중의 변화추이를 보면, 국민연금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를 보였으며,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른 타 공적연금의 상대적 비중 감소를 보여주는 것이다(통계청, 2010).

수급연금의 종류와 만족도를 살펴보면, 수급연금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이었으며, 특수직역연금에서는 퇴직연금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족연금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적연금 수급액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을 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시원 등, 2006).

Lee(2005)의 연금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국민연금 납부액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예외가 없는 국민연금 납부

제도에 대해 만족도는 아주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국민연금납부액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국민연금 납부액 관련 저소득층에 대한 예외가 없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근무 연수와 예상되는 연금 수혜기간을 대략 계산하여 연금수혜기간동안의 매월 연금 수혜액을 감안하여 대답했다는 전제하에 현재 내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에 대해 대체로 불만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은퇴설계와 노후준비자금

은퇴설계는 경제활동을 할 때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기간 중에 노후생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우재룡, 2006).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는 은퇴예정연령, 평균기대수명을 기초로 은퇴 후 생존기간, 은퇴 후 생활비, 인플레이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생활자금,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주택마련 자금 등 제반 재무목표를 확인하고, 이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그에 기초한 필요자금을 산출해야 한다(윤숙현, 2002).

은퇴설계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은 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Son & Im, 1985; Lee, 199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로 소득수준도 높아 자녀에게 노후를 의존하지 않으며 경제적인 계획의 수립이나 노후생활 설계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에 의하면 최종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석상훈 외 2008). 종교 및 취미생활, 사회적인 단체의 가입 등 자신의 노후생활을 바람 있게 보내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사무직 종사자들 보다 재정적으로 노후준비를 빨리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Park, 1992: 45-58).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공적연금종류를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공적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 또한 일반적 특성 외에 조사대상의 재정적 특성과 노후생활비 준비 특성에 따른 공적연금 수급액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공적연금 수급자의 일반적/재정적/노후

생활비 준비 특성은 어떠하며,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공적연금 수급자의 공적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2-1]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수급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수급액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재정적/노후생활준비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수급액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요인은 두 집단(국민연금수급자/특수직역연금 수급자)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2. 변수정의

본 연구는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수급액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모적을 연구하기 위하여 총 3가지 변수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는 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육체적 및 심리적 건강상태로 구성하였다. 재정적 특성 변수는 가계 총 소득, 연금 총 수령액, 개인 필요한 최소노후생활비, 적정노후생활비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노후생활준비 특성 변수는 노후생활비 마련방법,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의 충분성, 노후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로 구성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07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대상 8,786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샘플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국민연금 만족도에 응답한 1,245명과 특수직역연금 만족도에 응답한 229명인 총 1,474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공적연금 수급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정적 특성, 노후생활준비 특성, 연금 수급액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표준편차), 빈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공적연금 수급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후준비관련변수에 따른 공적연금 수급액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ANOVA분석,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공적연금 수급액 만족도에 대한 제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상관관계(Correlation)를 먼저 살펴본 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공적연금 수급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공적연금 수급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아래 <Table 1>과 같다.

연금 종류별 공적연금 수급액 만족도에 관하여 분석하기 위해 위에서 분석한 자료와 동일하게 조사대상 개인수 1,474명의 조사한 자료인 2007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횡단자료(개인) KRelSP0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1,245명으로 84.5%,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229명으로 16.5%의 비율을 차지하며,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67.7%, 여자 32.3%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65.9세였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34.5%), 고등학교(21.8%), 중학교(17.7%), 대학교(원)(13.6%), 무학(12.3%) 순으로 나타났고, 혼인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73.9%)이 이혼·사별·미혼 집단(26.1%)보다 약 2.8배 정도 많았으며, 육체적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42.9%), 좋다(31.8%), 보통이다(25.4%)의 순으로,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다(40.7%), 보통이다(35.5%), 좋지 않다(2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특성은 가계총소득, 연금수령액, 최소노후생활비, 적정노후생활비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가계총소득은 평균 2679.8만원, 연금수령액은 평균 507만원, 최소노후생활비는 평균 72.8만원, 적정노후생활비는 평균은 105.6만원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준비특성은 노후생활비 마련방법, 노후생활비 준비 충분정도, 노후생활비준비 미흡이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서는 공적연금(37.0%), 자신 및 배우자의 총 소득(22.8%), 자녀가 주는 돈(12.1%), 기타(2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생활비준비충분정도는 충분하지 못하다(73.3%), 충분하다(26.7%)로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노후생활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노후생활비준비의 미흡이유는 낮은 소득(50.6%), 생활비,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N=1474

variable	category	N(%)	variable	category	N(%)	
sex	male	998(67.7)	age	59 and less	90(6.1)	
	female	476(32.3)		60~69	1074(72.9)	
				70 and more	310(21.0)	
			mean(SD)	65.9(5.06)		
general factors	educational level	no education	181(12.3)	marriage status	with spouse	1089(73.9)
		elementary school	509(34.5)		without spouse	385(26.1)
		middle school	263(17.7)			
		high school	322(21.8)			
		college and above	201(13.6)			
physical health status	not good	632(42.9)	psychological health status	not good	350(23.7)	
	normal	374(25.4)		normal	524(35.5)	
	good	468(31.8)		good	600(40.7)	
		mean(SD)	1.89(0.86)			
				mean(SD)	2.17(0.78)	
financial factors	household total income (10,000won)	0~1000	316(24.4)	amount of pension receive (10,000won)	0~50	23(1.60)
		1000~2000	337(26.0)		50~150	467(33.2)
		2000~3000	243(18.7)		150 and more	917(65.2)
		3000~4000	144(11.1)			
		4000 and more	257(19.8)			
		mean(SD)	2679.8(2599.4)			
				mean(SD)	507(792)	
minimum living cost (10,000won)	0~50	284(19.3)	adequate living cost (10,000won)	0~70	320(21.7)	
	50~80	610(41.5)		71~100	340(23.1)	
	80 and more	577(39.2)		100 and more	811(55.1)	
		mean(SD)	72.8(38.5)			
				mean(SD)	105.6(54.2)	
preparation for living cost for aging factors	source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	public pension	545(37.0)	enough level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	enough	393(26.7)
		income	336(22.8)		not enough	1081(73.3)
		offspring	179(12.1)			
		others ¹⁾	414(28.1)			
	reason of inadequate preparation	low income	547(50.6)	type of public pension	national retirement pension	1245(84.5)
expenses of living, education	438(40.5)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229(16.5)			
not consider	96(8.90)					

1) others: No preparation 121(8.2%), saving 107(7.3%), investment in real estate 100(6.8), insurance 38(2.6%), severance pay 27(1.8%), inheritance 9(0.6%), other preparation 4(0.3%), personal pension 4(0.3%), traditional private fund 2(0.1%), relief fund 2(0.1%)

교육비 등 기타 비용으로 지출(40.5%), 생각하지 못함·기타(8.9%)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 차이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수급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으며, 성별(p<0.001), 연령(p<0.001), 교육수준(p<0.001), 혼인상태(p<0.05), 육체적 건강상태(p<0.001), 심리적 건강상태(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남자가 65.5%, 여자가 34.5%

이었으며, 특수직역연금수급 대상자는 남자가 79.5%, 여자가 20.5%인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국민연금수급 대상자의 경우 60~69세 77.2%, 70세 이상 17.5%, 59세 이하 5.3%의 순이었으며, 특수직역연금수급 대상자는 60~69세 49.3%, 70세 이상 40.2%, 59세 이하는 10.5%인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국민연금수급 대상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대상자의 연령별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시행시기와 국민연금의 적용 확대시기 등으로 인하여 연령별 수급자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에서는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초등학교 39.4%, 고등학교 19.8%, 중학교 18.6%, 무학 13.6%, 대학교(원) 8.8%의

Table 2. Differences of Recipient between National Retirement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general factors)

variable	category	national retirement pension (n= 1245)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n= 229)	χ^2	N(%)
sex	male	816(65.5)	182(79.5)	17.18***	
	female	429(34.5)	47(20.5)		
age	59 and less	66(5.3)	24(10.5)	76.32***	
	60~69	961(77.2)	113(49.3)		
	70 and more	218(17.5)	92(40.2)		
educational level	no education	169(13.6)	12(5.2)	224.22***	
	elementary school	490(39.4)	19(8.3)		
	middle school	231(18.6)	30(13.1)		
	high school	246(19.8)	76(33.2)		
	college and above	109(8.8)	92(40.2)		
marriage status	with spouse	907(72.9)	182(79.5)	4.4*	
	without spouse	338(27.1)	47(20.5)		
physical health status	not good	561(45.1)	71(31.0)	26.42***	
	normal	321(25.8)	53(23.1)		
	good	363(29.2)	105(45.9)		
psychological health status	not good	311(25.0)	39(17.0)	33.92**	
	normal	467(37.5)	57(24.9)		
	good	467(37.5)	133(58.1)		

* $p < .05$, ** $p < .01$, *** $p < .001$

순이었으며, 특수지역연금수급 대상자는 대학교(원) 40.2%, 고등학교 33.2%, 중학교 13.1%, 초등학교 8.3%, 무학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수급 대상자는 모든 국민이 대상인데 반해 특수지역연금 수급대상자는 공무원, 군인 등의 제한된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있어서 특수지역연금수급 대상자가 고학력인 것으로 보인다.

혼인상태는 국민연금수급 대상자의 경우 배우자 있음 72.9%, 이혼/사별/미혼 27.1%이었으며, 특수지역연금수급 대상자는 배우자 있음 79.5%, 이혼/사별/미혼 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육체적 건강상태는 국민연금수급 대상자의 경우 좋지 않다 45.1%, 좋다 29.2%, 보통이다 25.8%의 순이었으며, 특수지역연금 수급대상자는 좋다 45.9%, 좋지 않다 31.0%, 보통이다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건강상태는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좋다(37.5%), 보통이다(37.5%), 좋지 않다 (25.0%)의 순이었으며, 특수지역연금 수급대상자는 좋다(58.1%), 보통이다 (24.9%), 좋지 않다(17.0%)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3)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지역연금 수급자의 재정적 특성 차이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지역연금 수급자의 재정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3>와 같으며, 가계총소득 ($p < 0.001$), 연금수령액($p < 0.001$), 최소노후생활비($p < 0.001$), 적정노후생활비($p < 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계총소득은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1,000만원 미만 28.5%, 1,000~2,000만원 27.8%, 2,000~3,000만원 17.4%, 4,000만원 이상 16.5%, 3,000~4,000만원 9.8%의 순이었으며, 특수지역연금 수급대상자는 4,000만원 이상 37.3%, 2,000~3,000만원 25.8%, 3,000~4,000만원 17.7%, 1,000~2,000만원 16.3%, 1,000만원 미만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금수령액에서는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150만원 이상 58.7%, 50~150만원 39.4%, 50만원 미만 1.9%의 순이었으며, 특수지역연금 수급대상자는 150만원 이상 99.1%, 50~150만원 0.9%, 50만원 미만 0.0%로 대부분이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지역연금 수급액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된다.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최소노후생활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50~80만원 44.9%, 80만원 이상 33.1%, 50만원 미만 22.0%의 순이었으며, 특수지역연금 수급대상자는 80만원 이상 72.8%, 50~80만원 22.8%, 50만원 미만 4.4%로 나타나 특수지역연금 수급대상자가 국민연금 수급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의 최소노후생

Table 3. Differences of Recipient between National Retirement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financial factors)

N(%)

variable	category	national retirement pension (n= 1243)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n= 228)	χ^2
household total income ¹⁾ (10,000won)	0~1000	310(28.5)	6(2.9)	11.31***
	1000~2000	303(27.8)	34(16.3)	
	2000~3000	189(17.4)	54(25.8)	
	3000~4000	107(9.8)	37(17.7)	
	4000 and more	179(16.5)	78(37.3)	
amount of pension receive ²⁾ (10,000won)	0~50	23(1.9)	0(0)	136.66***
	50~150	465(39.4)	2(0.9)	
	150 and more	693(58.7)	224(99.1)	
minimum living cost (10,000won)	0~50	274(22.0)	10(4.4)	131.35***
	50~80	558(44.9)	52(22.8)	
	80 and more	411(33.1)	166(72.8)	
adequate living cost (10,000won)	0~70	305(24.5)	15(6.6)	82.329***
	701~100	315(25.3)	25(11.0)	
	100 and more	623(50.1)	188(82.5)	

*** $p < .001$

1) national retirement pension n=1088,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n=209

2) national retirement pension n=1181,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n=226

Table 4. Differences of Recipient between National Retirement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preparation for aging factors)

N(%)

variable	category	national retirement pension (n= 1245)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n= 229)	χ^2
source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	public pension	363(29.2)	182(79.5)	217.03***
	income	326(26.2)	10(4.4)	
	offspring	177(14.2)	2(0.9)	
	others	379(30.4)	35(15.3)	
enough level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	enough	253(20.3)	140(61.1)	164.78***
	not enough	992(79.7)	89(38.9)	
reason of inadequate preparation ¹⁾	low income	532(53.6)	15(16.9)	55.78***
	expenses of living, education	369(37.2)	69(77.5)	
	not consider	88(8.9)	5(5.6)	

*** $p < .001$

1) national retirement pension n=992,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n=89

활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노후생활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 50.1%, 71~100만원 25.3%, 70만원 미만 24.5%의 순이었으며, 특수직역연금 수급대상자는 100만원 이상 82.5%, 71~100만원 11.0%, 70만원 미만 6.6%로 국민연금 수급대상자 보다 높은 수준의 적정노후 생활비를 나타내었다.

4)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비 준비 특성 차이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비 준비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으며, 노후생활비마련방법($p < 0.001$), 노후생활비 준비 충분정도($p < 0.001$), 노후준비미흡이유($p < 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노후생활비마련방법에서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공적연금 29.2%, 소득 26.2%, 자녀가 주는 돈 14.2%, 기타 30.4%

의 순이었으며, 특수직역연금 수급대상자는 공적연금 79.5%, 소득 4.4%, 자녀가 주는 돈 0.9%, 기타 15.3%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준비충분정도는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충분하지 못하다 79.7%, 충분하다 20.3%였으며, 특수직역연금 수급대상자는 충분하다 61.1%, 충분하지 못하다 38.9%로 나타나 국민연금 수급대상자보다 노후준비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낮은 소득 53.6%, 생활비·교육비 37.2%, 생각못함/기타 8.9%이었으며, 특수직역연금 수급대상자는 생활비·교육비 77.5%, 낮은 소득 16.9%, 생각못함/기타 5.6%로 나타났다.

2. 공적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

1)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 만족도

공적연금 수급대상자가 가입한 연금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 8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유족연금이 8.1%로 나타났다. 그 뒤로 장애연금(1.0%)과 분할연금(0.1%)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65.2%)과 군인연금(22.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10.9%), 별정우체국연금(0.9%)순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종류별 공적연금 수급액 만족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보통(41.1%), 불만족(33.3%), 만족(19.8%), 매우 불만족(4.6%), 매우 만족(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액 만족도는 만족(44.1%), 보통(36.2%), 불만족(13.5%), 매우 만족(5.2%), 매우 불만족(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금별 만족도는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액 만족도가 5점 만점에서 3.39점으로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 2.8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2)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금 수급액 만족도 차이

공적연금 수급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적연금 수급액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6>와 같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육체적 건강상태($p<0.01$), 심리적 건강상태($p<0.05$)로 나타났다.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좋지 않은 집단보다,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좋지 않은 집단보다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연령($p<0.05$), 교육수준($p<0.05$), 심리적 건강상태($p<0.05$)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70세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들보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원) 집단이 무학인 집단보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가 높았고,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재정적 특성에 따른 연금 수급액 만족도 차이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재정적 특성에 따른 연금 수급액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적정노후생활비($p<0.01$)로 나타났다. 적정노후생활비에서는 적정노후생활비를 70만원 이하로 생각하는 집단이 101만원 이상으로 생각하는 집단보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연금수령액($p<0.001$)으로 나타났다. 연금수령액이 150만원 이상인 집단이 15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4)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준비 특성에 따른 연금 수급액 만족도 차이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준비 특성에 따른 연금 수급액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노후생활비 마련방법($p<0.05$), 노후생활비준비의 충분정도($p<0.001$)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있는 집단이 자녀에게 받는 돈의 집단보다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생활비준비의 충분정도에서는 노후생활비준비가 충분한 집단이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노후생활비 준비충분정도($p<0.001$)로 나타났으며,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한 집단이 충분하지 못한 집단보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적연금 수급자별 공적연금 수급액 만족도의 결정 요인(영향요인)

공적연금 수급자별 공적연금 수급액 만족도의 영향요인은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Table 9> 참조).

분석에 앞서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노후생활비 마련방법, 노후생활비준비 미흡이유를 가변수(Dummy Variable)화

Table 5. Type of Pension and Satisfaction of Public Pension Receipts between National Retirement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N=1474

type of pension		N(%)	level of satisfaction	N(%)	Mean(SD)
public retirement pension	old age pension	110(89.2)	very unsatisfied	57(4.6)	2.80 (0.85)
	handicapped pension	15(1.0)	unsatisfied	414(33.3)	
	bereaved family pension	119(8.10)	average	512(41.1)	
	divided pension	1(0.10)	satisfied	247(19.8)	
			very satisfied	15(1.2)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public servant pension	150(65.2)	very unsatisfied	2(0.9)	3.39 (0.82)
	private education pension		unsatisfied	31(13.5)	
	army pension		average	83(36.2)	
	special post officer pension		satisfied	101(44.1)	
			very satisfied	12(5.2)	

Table 6.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Public Pension Receipts between National Retirement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general factors)
N=1474

variable	category	satisfaction of national retirement pension receipts (n= 1245)		satisfaction of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receipts (n= 229)		
		mean	D ¹⁾	mean	D	
sex	male	2.83		3.36		
	female	2.74		3.51		
	t value		1.65		-1.11	
age	59 and less	2.67		3.25	b	
	60~69	2.81		3.28	b	
	70 and more	2.78		3.57	a	
	F ratio		0.92		3.5*	
educational level	no education	2.79		2.75	b	
	elementary school	2.82		3.37	a	
	middle school	2.82		3.50	a	
	high school	2.75		3.34	ab	
	college and more	2.77		3.49	a	
	F ratio		0.38		2.44*	
marriage status	with spouse	2.82		3.38		
	without spouse	2.73		3.43		
	t value		1.79		-0.31	
physical health status	not good	2.71		3.45		
	normal	2.84		ab		3.40
	good	2.89		a		3.35
	F ratio		5.69**		0.31	
psychological health status	not good	2.71		3.23	ab	
	normal	2.84		ab	3.21	b
	good	2.89		a	3.52	a
	F ratio		3.77*		3.85*	

*p < .05, **p < .01

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National Retirement Pension Receipts and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Receipts (Financial Factors) N=1474

variable	category	satisfaction of national retirement pension receipts		satisfaction of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receipts	
		mean	D ¹⁾	mean	D
household total income (10,000won)	0~1000	2.72		2.83	
	1000~2000	2.84		3.24	
	2000~3000	2.93		3.28	
	3000~4000	2.86		3.54	
	4000 and more	2.75		3.49	
F ratio		2.31		1.89	
amount of pension receive (10,000won)	0~50	2.78		-	
	50~150	2.73		3.00	
	150 and more	2.84		3.39	
F ratio		2.17		-7.14*** ²⁾	
minimum living cost (10,000won)	0~50	2.86		3.60	
	50~80	2.77		3.44	
	80 and more	2.80		3.36	
F ratio		1.27		0.53	
adequate living cost (10,000won)	0~70	2.93	a	3.47	
	71~100	2.81	ab	3.44	
	100 and more	2.73	b	3.38	
F ratio		6.0**		0.13	

** $p < .01$, *** $p < .001$

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T-Test

Table 8. Difference in Satisfaction of National Retirement Pension Receipts and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Receipts (Preparation for Aging Factors) N=1474

variable	category	national retirement pension satisfaction income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satisfaction income	
		mean	D ¹⁾	mean	D
source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	public pension	2.78	ab	3.44	
	income	2.91	b	3.40	
	offspring	2.68	a	2.50	
	other	2.77	ab	3.20	
F ratio		3.3*		1.65	
enough level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	enough	3.05		3.69	
	not enough	2.73		2.92	
t value		5.28***		7.82***	
reason of inadequate preparation	low income	2.71		2.60	
	expenses of living, education	2.79		2.97	
	not consider	2.73		3.20	
F ratio		1.25		1.45	

* $p < .05$, *** $p < .001$

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9. Regression for Satisfaction of National Retirement Pension Receipts and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Receipts N=1474

independent		dependent	
		national retirement pension receipts satisfaction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receipts satisfaction
		B(β)	B(β)
sex	male	0.053(0.064)	-0.375(0.148) *
	age	0.006(0.006)	0.019(0.009) *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0.02(0.084)	0.746(0.289) *
	middle school	-0.053(0.103)	0.821(0.284) **
	high school	-0.159(0.106)	0.714(0.268) **
	college and more	-0.251(0.137)	0.614(0.27) *
household total income		0.002(0.022)	0.069(0.051)
amount of pension receive		0.096(0.052)	0.674(0.523)
physical health status		0.065(0.039)	-0.121(0.067)
psychological health status		0.029(0.041)	0.143(0.076)
minimum living cost		-7.249E-05(-0.0001)	7.486E-05(0.0001)
source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	public pension	0.054(0.071)	0.037(0.14)
	income	0.201(0.073) **	0.141(0.274)
	offspring	-0.066(0.087)	-0.956(0.538)
reason of inadequate preparation	low income	-0.256(0.069) ***	-0.949(0.23) ***
	expenses of living, education	-0.152(0.072) *	-0.599(0.118) ***
R ²		4.4	31.1
constant		2.12 ***	-0.49
F ratio		2.92 ***	5.34 ***

*p < .05, **p < .01, ***p < .001

1) reference for dummy variable: sex(female), educational level(no education), source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others), reason of inadequate preparation(not consider)

하여 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변수들 간에 0.6수준 이상으로 상관이 높은 변수인 혼인상태, 걱정노후생활비, 노후생활비 마련방법 중 없음을 제외한 모든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변수는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서 총 소득(β=0.073), 노후생활비 준비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작은 소득(β=0.069),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β=0.072)이었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4.4%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이 기타인 집단에 비하여 소득을 통하여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집단, 생각못함/기타 경우에서 준비하지 않을 경우보다 작은 소득일 경우, 생활비나 교육비 지출일 경우가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변수는 성별(β=0.0148), 연령(β=0.009), 교육수준에서 초등학교(β=0.289), 중학교(β=0.0284), 고등학교(β=0.268), 대학교 및 이상(β=0.27), 노후생활비 준비 충분하지 않은 이유에서 작은 소득(β=0.23),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β=0.118)이었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31.1%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교육수준에서는 무학인 집단보다 어느 교육수준이 있는 집단이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생활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서 준비하지 않을 경우보다 작은 소득일 경우, 생활비나 교육비일 경우가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07년)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50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변수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평균연령은 65.9세,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가장 많았고, 육체적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가 절반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건강상태는 좋다, 보통이다, 좋지 않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특성은 가계총소득은 평균 2679.8만원, 연금수령액은 평균 507만원, 최소노후생활비는 평균 69만원, 적정노후생활비는 평균 101만원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준비특성은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서는 기타 제외하여 자신 및 배우자의 소득이 가장 많은 비율이며,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노후생활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노후생활비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낮은 소득과 교유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연금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 차이에 대하여 성별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에서 남자의 비중이 높았고, 연령에서는 국민연금 수급대상자는 60~69세에 집중된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대상자는 60~69세, 70세 이상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교육수준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고학력이 많았으며, 혼인상태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배우자가 있는 비중이 조금 높았다. 다음으로 육체적 건강상태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좋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높은 가계총소득, 연금수령액, 최소노후생활비, 적정노후생활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준비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노후생활비 준비충분정도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노후준비가 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준비미흡이유는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낮은 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대상자는 생활비·교육비의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가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에서는 육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 적정노후생활비를 낮게 생각하는 집단, 소득이 있는 집단,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한 집단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심리적 건강이 좋은 집단, 연금수령액이 높은 집단,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한 집단이 만족도가 높았다.

여섯째, 공적연금 수급자별 연금 수급액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에서는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이 소득을 통하여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집단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에서는 성별에서는 남자일 경우, 중학교졸업일 경우가 만족도가 높았고 또한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는 감소하는 반면, 심리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생활비준비에 따른 연금 수급액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 아직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노후준비 해야 한다는 인식과 노후분비를 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노후준비 아직 못하는 원인 중에 작은 소득과 교육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금수급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니 공적연금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재정투명성의 확보, 소득에 추정의 활성화, 투자정책확보, 납부율 인하, 개시연령의 단축 등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공적연금제도를 여러 방법으로 통하여 개선하여 연금수급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충분한 노후생활비 준비와 공적연금 수급대상자의 육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정부나 사회에서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육체적·심리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적인 부분으로나 또는 기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노후생활비 준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교육 그리고 스스로 벌어서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는 실버취업제도를 실행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24.7%(만족:20.1%, 매우만족:1.2%)밖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육체적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좋을수록 좋지 않은 집단보다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적 건강상태가 보통, 좋을수록 좋지 않은 집단보다 국민연금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좋지 않을 때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진다. 적정노후생활비를 낮게 생각할수록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는 높으며,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있을수록 자녀에게 돈을 받거나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이 없는 집단보다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가 높다. 또한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한 집단이 충분하지 못한 집단보다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및 배우자의 소득활동보다 기타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일반적금 및 예금, 주식·채권수익, 부동산투자, 계, 개인연금, 사적보험, 퇴직(연)금, 공적연금, 공공부조, 유산)이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녀에게 받는 돈보다 기타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이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일반적금 및 예금, 주식·채권수익, 부동산투자, 개인연금, 사적보험, 퇴직(연)금, 공적연금 등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참여하게 만들어 연금 등을 잘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면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그리고 육체적 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학력자들이 갖는 특수직역연금의 불만족적인 부분을 알아내고 고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지만, 공적연금 수급자만 선정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공적연금 수급과 사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수급액 만족도에 관한 비교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나 방법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 중에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법을 모색하여 도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연금수급액에 대한 만족도가 수급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여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 강성호·이지은(2010).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11). 2010년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연차보고서. 공무원연금(GEPS)연구소.
- 국가재정운용계획(2011). 2011~205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장기재정전망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장기재정전망 분야 작업반공개 토론회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2001, 2002, 2007, 2009). 국민연금 연수교재.
- 국방부 군인연금(2010). 2009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
- 김시원·이용하·강성호·김정은·정일영(2006).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제1차(2005년도), 국민연금연구원.
- 김익균(2002).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 남재현(2011).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2006). 직장인 노후대책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함의.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2008). 2008 통계연보.
- 삼성경제연구소(2005). www.nso.go.kr.
- 서울복지재단(2008). 서울시민의 연령집단별 노년준비실태 및 노인복지욕구 조사.
- 석상훈·송현주·이근영·오병국(2008). 제2차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 우재룡(2006). 행복한 노후설계 무작정 따라하기. 서울: 길벗.
- 윤숙현(2002). 노년기 재무설계에 관한 기초연구. 산업기술연구논문집, 10, 93-100.
- 이용하(2001).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 및 조화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구보고서.
- 통계청(2007, 2009, 2010, 2011). 고령자통계. www.kostat.go.kr.
- 통계청(2009). 2009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사회참여) 보도 자료. 사회통계국 사회복지통계과. www.kostat.go.kr.
- 통계청(2010). 가계금융조사. www.kostat.go.kr.
- 한국경제(2011). 고령화·인구감소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설계. www.hankyung.com.
- Jeon, Y.(2008). A Study of Strategic Comparative on Economic Environment and Asset Management about Old Age Providing with Korean-Japanese Househol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Kang, S. & Lee, J.(2011). Expansion Plan on Disability Pension for the Disabilities Prior 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troduction & Affiliation.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7(3), 165-193.
- Kim, S. & Park, U.(1992). Urban Families Preparation Behavior for the Elderly Lif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2), 45-58.
- Kim, W.(2011). Aging and Pension: Design for the Future. *Journal of Pension Studies*, 1(1), 1-35.
- Lee, J.(1999). A study on the middle-aged Worker's Life Plan for Their Elderly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K.(2005). The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 focused on the dweller and worker who live in Seoul -.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 Son, S. & Im, J.(1985). A Study on the Adult's Consciousness to the Provision for Elderly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 107-125.
- Song, H.(2003). A study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for Elderly Income Security in Aging Society in South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 Yoo, I.(2008). On the Reform of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1(2), 185-217.
- Yuh, Y. & Joung, S. & Moon, S.(2007).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Korean Households.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0(3), 129-155.
- M. W. Riley et al.(1968), *Aging and Society*, N.Y.: Russell Sage Foundation.

- 접수일 : 2012년 01월 16일
- 심사일 : 2012년 02월 07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3월 30일